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탁진국 신필순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원인을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원인이 탈진감을 비롯한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 30명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기술하게 하여 얻은 220개 반응을 토대로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직무스트레스원인 척도를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292명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행정, 학생의 불순한 태도 및 행동, 교직에 대한 자괴감, 교과관련 문제점, 과도한 수업관련 업무, 학생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학부 모 간섭 등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요인구조가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 가운데 학부 모 간섭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비합리적 행정, 불순한 학생태도 및 행동의 순이었다. 탈진감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Maslach와 Jackson(1981)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3 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원인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상관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비합리적 행정 요인이 정신건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IMF 이후 많은 직장인들이 감봉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어느 직업보다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간주되어 왔던 교사직도 예외가 아니어서, 갑작스런 정년단축, 임금삭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수행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증가 등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는 매우 높아져가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스트레스는 타 직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ewsweek(1988. 4)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10가지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가 첫 번째로 선정되었다.

Wilson(1979)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스트레스는 많은 직업가운데 항공관제사와 외과의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에도 교사의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종철(1991)의 연구에서 일반공무원, 기업체 직원, 교사의 세 집단 가운데 교사 집단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교사의 90%정도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애, 1985).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와 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다른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한 연구,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Newell, 1995).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직무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Milstein, Golaszewski 및 Duguette(1984)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발전가능성과 직장의 분위기로 나타났다. Kyriacou와 Sutcliffe(1978)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주요 원인을 학생들의 불손한 행동, 열악한 근무조건, 시간압박, 그리고 학교 분위기 등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휘(1991)가 초,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39개 직무스트레스원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관료적 운영, 권위상실, 불화와 갈등, 낮은 대우, 과부하, 학급관리, 그리고 학생지도의 일곱 개 요인이 나타났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교사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문신자(1994)의 연구에서 특수학교 교사의 주요 직무스트레스는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및 직무관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동료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직무관계 등이 주요 직무스트레스 영역으로 나타났다.

권기태(1990)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lark(1980)이 개발하고 D'Arienzo(1981)가 수정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행정적 지원,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활동, 경제적 안정, 그리고 업무과다의 다섯 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추출되었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희찬(1997)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 조직구조, 근무부담,

교육과정, 복지, 인간관계, 학생관련, 사회적 인정, 직업적 발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아홉 개 요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내 연구 가운데 많은 연구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원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국외의 척도를 번안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국내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원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에서 교사들은 정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이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원인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진학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내 환경에서, 전체 교사 가운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교사는 바로 고등학교 교사이며, 이로 인해 이들이 받는 직무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현 시점에 적합한 고등학교 교사의 주요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기술하게 한 뒤,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직무스트레스원인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사는 발달단계에서 보면 미성숙자인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도 사람들을 접하는데

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이 더 높게 된다. 탈진감(Burnout)은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태도상의 고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Cunningham, 1983), 정신 및 육체적 피곤함의 정도를 나타내준다. 탈진감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척도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도구로서,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낮은 성취감(personal accomplishment)의 세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Maslach와 Jackson의 탈진감 척도를 사용한 국외 연구에서 이러한 세 개의 요인구조는 일관되게 나타났다(Gold, 1984; Green & Walkey, 1988; Iwanicki & Schwab, 1981). 국내에서는 김민호(1991)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재호, 이수정 및 이훈구(1998)가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이들의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Maslach와 Jackson(198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세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탈진감이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직이나 교사직 등에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탈진감을 사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김정휘(1991)는 초,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원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관료적 운영, 권위상실, 불화와 갈등, 낮은 대우, 과부하, 학급관리 및 학생지도의 일곱 개의 요인이 탈진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 개의 요인 가운데 불화와 갈등 및 과부하의 두 요인만이 탈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휘의 연구에서는 탈진감의 세 요인을 합산한 값을 준거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탈진감(burnout)척도를 사용하여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곤함을 측정하며, 직무스트레스원인이 탈진감의 각 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관련 변인으로서 탈진

감 이외에 불안과 신체화를 추가하여 직무스트레스원인이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K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30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29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해 살펴보면 남성이 255명(87.3%)이고, 기혼이 264명(90.4%),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151명(51.7%)이었다. 평균연령은 43세였고 평균 교육경력 16년이었다.

연구절차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교사 30명에게 자신이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를 기술하게 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은 220개 문항을 두 명의 심리학 전문가가 검토하여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45개 직무스트레스원인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K시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300명에게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에게는 선물로 1,000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불편을 지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92명으로서 97%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도구

직무스트레스 원인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완성한 45개 직무스트레스원인 문항을 Likert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이 교사로서 일하는데 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답하도록 하였다(1: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2: 작용하지 않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작용하는 편이다; 5:

크게 작용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여러 요인에 중복되어 높게 관련된 5개 문항을 제거하고(연구결과에서 설명), 최종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40개였다.

탈진감(burnout)

탈진감은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주 각 문항이 제시하는 내용(예,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갈된 느낌이다)과 같이 느끼는지를 각 문항의 원편 공란에 0에서 6까지의 번호를 적게 하여 측정하였다(0: 결코 없다; 1: 일년에 몇 번; 2: 한달에 한 번; 3: 한달에 몇 번; 4: 일주에 한 번; 5: 일주에 몇 번; 6: 매일). 점수가 높을수록 탈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전체상관 분석 결과 한 문항("학생들이 느끼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의 상관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04), 이 문항을 제거하고 21개 문항으로 탈진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관성계수인 alpha값은 .84였다.

불안

불안은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이 개발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특성불안 척도를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및 이진효(1993)가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 요인계수가 높은 6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Likert형식의 4점 척도(1: 전혀 그런 적이 없다; 4: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6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한 문항의 문항-전체상관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01), 이 문항을 제거하고 5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5개 문항으로 구성된 특성불안척도의 신뢰도계수인 alpha값은 .79로 나타났다.

신체화

신체화는 한덕웅 등(1993)이 사용한 네가지 요인(통증, 소화장애, 불면 및 심혈관계장애)으로 구성된 18개 문항 가운데 각 요인 당 요인계수가 높은 3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전체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요인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괴로움을 더 많이 겪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되었다. 전체 문항의 alpha계수는 .94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통증 요인의 경우 .84, 불면 요인은 .89, 소화장애 요인은 .94, 그리고 심혈관계장애 요인은 .91이었다.

분 석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원인 척도와 탈진감 척도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원인 요인이 탈진감을 비롯한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 원인의 요인분석

45개 직무스트레스원인 문항에 대해 문항-전체상관과 문항제거시 신뢰도 값을 통한 문항분석 결과 문항-전체상관이 0.2이하의 값을 갖거나 문항제거시 alpha값이 증가하는 문제가 되는 문항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5개 문항을 구성하는 공통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통요인분석 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구조를 회전시켰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고유치가 1.0이상으로 나타난 12개의 요인을 토대로 회전시켰다. 그러나 12개 요인의 회전된 요인구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요인구조 파악을 위하여 요인의 수를 5개에서 11개까지 다양하게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일곱 차례 실시하였다.

다양한 요인구조 가운데 7개 요인을 지정한 경우가 요인들에 대한 해석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원인의 요인수를 7개로 결정하였다. 요인의 수를 7개로 정했을 때, 45개 문항 가운데

5개의 문항이 여러 요인에 중복되게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5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문항을 40개로 확정하였다. 표 1은 40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7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요인 1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 행정”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에 속하는 문항 가운데 “IMF이후 교육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때” 문항은 요인 1(.30)보다는 요인 6(.43)에 더 높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요인 1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요인 1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요인 1은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계수인 alpha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나 잘못된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춘지로 인하여 교원전체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문항은 요인 2에 더 높게 관련되었으나(.39), 요인 2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의미상 일치하지 않았다. 이 문항은 요인 3과도 높게 관련되었고(.36), 요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요인 3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2가 아닌 요인 3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요인 2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계수인 alpha계수는 .76이었다.

요인 3은 사회적 비판 등으로 인해 교직 자체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자괴감”으로 명명하였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춘지로 인하여 교원전체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문항은 요인 3에 포함시켰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3의 alpha계수는 .72였다.

요인 4는 교과목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교과관련 문제점”으로 명명하였다. “떠드는 학생을 지도하다 끝 중 날때”문항은 요인 4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으나(.37), 요인 6과도 관련

성이 높았고(.36), 요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요인 6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6에 할당하였다. 최종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4의 alpha계수는 .69였다.

요인 5는 최근의 교육개혁 작업으로 인해 수행평가와 수준별 이동학습의 실시 등으로 나타난 과다한 수업관련업무를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다한 수업관련업무”로 명명하였다. 4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5의 alpha계수는 .72였다.

요인 6은 학생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에서 설명하였듯이 “IMF이후 교육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때”문항은 요인 6과 더 높게 관련되었으나 요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요인 1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6의 alpha계수는 .59였다.

요인 7은 학부모들의 간섭 등이 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 작용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학부모 간섭”으로 명명하였다.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lpha계수는 .61이었다.

탈진감척도의 요인분석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탈진감 척도는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그리고 낮은 성취감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2개 문항 가운데 문항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21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래의 3개 요인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고, 공통요인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각회전인 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회전시켰다.

표 2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Maslach와 Jackson(198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개 요인은 탈진감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나타내는 “정서적 소진”을, 요인 2는 학생들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낮은 성취감”을, 그리고

표 1

직무스트레스 원인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1	2	3	4	5	6	7
교장,교감의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64						
교육행정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때	.56						
인사에 공정성이 없을 때	.55						
자율학습이라고 밤 10시까지 혼자 남아 지도할 때	.49						
교사들 봉급이 타 직장보다 비교될 때	.47						
수업 외 잡무가 너무 많은 때	.45				.39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	.41						
교육감 등을 교사들은 제쳐놓고 학부모가 뽑을 때	.40	.35	.35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수업도 없는데 퇴근시간을 기다려야할 때	.39						
공문작성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내라고 독촉하여							
거짓으로 꾸며 작성할 때	.36						
IMF이후 교육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됨을 느낄 때	.30					.43	
지각,조퇴 등이 많은 때		.68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할 때		.66					
청소상태가 불결할 때		.65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수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느낌일 때		.52					
학생의 태도가 불공손할 때		.34					
정년단축에 대한 말이 나올 때			.61				
정년퇴임한 선배교사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났을 때	.31		.49				
졸업생이 와서 3학년 때 담임만 찾을 때	.36		.41	.38			
사회여론의 악화로 스승의 날이 존경대신 격하될 때	.33		.40			.31	
진급의 기회가 없거나 진급의 기회를 잃을 때			.38	.30			
불우이웃돕기,군경돕기 성금 등을 강제로 봉급에서 뺄 때			.36				
존지로 인하여 교원전체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39	.36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				.55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때				.50			
전공과목도 아닌 수업을 갑자기 배정받았을 때				.48			
수능과목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46			
실습설비 없는 실습시간을 계속해야할 때				.42			
시험출제(중간,기말고사 등)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35		.33	
수준별 이동학습으로 인하여 두 번 수업준비할 때					.75		
수준별 이동학습으로 인하여 평가가 곤란할 때					.71		
수행평가 때문에 업무가 가중될 때	.32				.45		
수업시간이 너무 많은 때					.38		
학생들이 사고(가출, 싸움, 무단결석 등)했을 때		.30				.44	
학생들의 성적이 나쁠 때						.40	
진학지도가 잘 되지 않을 때						.36	
떠드는 학생을 지도하다 끝 종이 날 때				.37		.36	
교사의 잘못이 아닌 일에 학부모의 항의전화가 왔을 때							.65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시할 때			.41				.59
필요이상의 간섭을 받을 때						-.35	.39
alpha 계수	.81	.76	.72	.69	.72	.59	.61
설명 변량(%)	8.53	6.35	5.78	5.49	5.19	4.03	3.67

주. 요인계수가 .30이상만 제시하였음.

요인 3은 업무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학생과 주변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함을 의미하는 “비인간화”를 나타낸다.

각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은 Maslach와 Jackson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낮은 성취감에 속하는 문항은 Maslach와 Jackson(1981)에서의 문항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요인 1인 “정서적 소진”에 가장 높게 관련된 문항 가운데 “교사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낀다”(55)와 “교사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게 대해 더 무감각해졌다”(35)는 동시에 요인 3인 “비인간화”에도 높게 관련되었다(각각, .39와 .34).

이 두 문항은 Maslach와 Jackson의 연구에서 “비인간화”에 속하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요인 3인 “비인간화”요인도 높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인간화”요인에 포함시켰다. 요인 3인 “비인간화”와 가장 높게 관련된 문항 가운데 “업무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57)와 “진퇴양난에 처한 느낌이다”(55)문항은 Maslach와 Jackson의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에 포함되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요인 1인 “정서적 소진”과 높게 관련된(각각 .49와 .39)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서적 소진”요인에 포함시켰다.

표 2

탈진감척도의 요인분석

문 항	정서적 소진	낮은 성취	비인간화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탈진감을 느낀다	.76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서 또 하루를 보내야 할 것을 생각하면 피곤해진다	.76		
퇴근 무렵에는 완전히 지친 느낌이다	.76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갈된 느낌이다	.65		
하루종일 사람들을 대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59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느낀다	.55		.40
사람들을 직접 대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55		.47
업무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48		.57
진퇴양난에 처한 느낌이다	.39		.55
학생들과 가까이 접한 후에는 유쾌해진다(R)		.78	
교사직을 통해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달성했다(R)		.76	
학생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다(R)		.72	
교사로서의 직업을 통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R)		.68	
매우 원기왕성함을 느낀다(R)	.32	.62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를 매우 차분하게 다룬다(R)		.51	
학생들의 문제점을 잘 다룰 수 있다(R)		.49	
학생들이 일부 문제에 대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54
일부 학생들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52
일부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40
교사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낀다	.55		.39
교사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게 대해 더 무감각해졌다	.35		.34
alpha 계수	.90	.83	.68
설명 변량	20.3	14.8	12.0

주. 요인계수가 .30 이상만 제시하였음.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 가운데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요인은 학부모 간섭(4.27)이었으며, 다음은 비합리적 행정(4.06),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3.97)의 순이었다.

탈진감에서는 낮은 성취감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2.67), 전체적으로 3개 요인 모두 2.0대임을 고려할 때(2.0은 한달에 한 번, 3.0은 한 달에 몇 번 느끼는 것임), 고등학교 교사들이 탈진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화에서도 통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2.49), 전체적으로, 반응양식에서 각 문항에 대한 값의 범위가 1.0에서 5.0이며 3.0이 '그저 그렇다'임을 고려할 때, 신체화의 정도는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의 경우도 평균이 2.28로서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에서 "2"는 "그런 적이 없는 편이다", "3"은 "그런 편이다"임을 고려할 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직무스트레스원인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원인이 탈진감, 불안, 신체화 등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원인의 각 요인과 정신건강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과 탈진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전반적으로 정서적 소진과 비인간화 요인과는 유사하게 관련되었다. 정서소진과 관련이 있는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비합리적 행정(.32), 교직에 대한 자괴감(.15), 과다한 수업관련 업무(.17), 학생지도의 어려움(.12), 그리고 학부모 간섭(.17)이었다. 비인간화와 유의하게 관련 있는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비합리적 행정(.25), 과다한 수업관련 업무(.12), 그리고 학부모의 간섭(.16)이었다.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직에 대한 자괴감(.11)과 학생지도의 어려움(.10)도 비인간화와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교사들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자신이 학생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성취와 유의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교과관련 문제

표 3

모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원인		
비합리적 행정	4.05	.50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	3.97	.52
교직에 대한 자괴감	3.70	.60
교과관련 문제점	3.75	.63
과다한 수업관련업무	3.91	.64
학생지도의 어려움	3.83	.53
학부모 간섭	4.27	.67
탈진감		
정서적 소진	2.48	1.22
낮은 성취감	2.67	1.20
비인간화	2.01	1.03
신체화		
소화장애	2.07	.98
심혈관계장애	2.01	.92
통증	2.49	.99
불면	2.20	.96
불안	2.28	.47
자기효능성	3.77	.66

점(-.15)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가운데 비합리적 행정이 탈진감과 가장 크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행정은 정서적 소진 및 비인간화와 가장 높게 관련되었다. 다음은 교과관련 문제점과 학부모 간섭으로서 이 두 요인도 정서적 소진 및 비인간화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신체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신체화요인 가운데 소화장애 및 심혈관계장애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소화장애와 유의하게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비합리적 행정(.17)과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13), 그리고 교직에 대한 자괴감(.13)이었다. 심혈관계장애와 유의하게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비합리적 행정(.16), 교과관련 문제점(.12), 그리고 학생지도의 어려움(.12)이었다. 반면과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학부모간섭(.12)이었다. 이 결과는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이 직장에서 많이 지각될수록 소화장애, 심혈장애, 불면 등의 고통을 받는 경향이 강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통증과 유의하게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 관련 있는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비합리적 행정(.23), 교직에 대한 자괴감(.21), 교과관련 문제점(.24), 그리고 학생지도의 어려움(.25)이었다.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가운데 비합리적 행정이 정신건강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이 정신건강의 각 변인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건강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두고 7개의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둔 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이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신건강 변인은 불안($R^2 = .14$), 정서적 소진($R^2 = .13$), 비인간화($R^2 = .09$), 그리고 불면($R^2 = .06$)이었다. 그러나 설명변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원인을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원인이 탈진감을 비롯한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자체 개발된 직무스트레스원인 척도를 292명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가 비합리적 행정,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 교직에 대한 자괴감, 교과관련 문제점, 과다한 수업관련 업무, 학생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학부모 간섭 등의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 간섭 요인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합리적 행정 요인과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 요인의 순이었다.

7개 요인 가운데 “학부모 간섭”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원인에 관하여 실시된 과거의 국내 연구 결과

표 4

직무스트레스 원인 요인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 원인요인	정서소진	낮은성취	비인간화	소화장애	심혈장애	통 증	불 면	불 안
비합리적 행정	.32**	-.10	.25**	.17**	.16**	.04	.01	.23**
학생의 불손한 태도 및 행동	.08	-.07	.06	.13**	.09	.01	-.10	.07
교직에 대한 자괴감	.15**	-.05	.11	.13**	.07	.01	.01	.21**
교과관련 문제점	.05	-.15**	.00	.11	.12*	-.03	-.02	.24**
과다한 수업관련업무	.17**	-.01	.12*	.07	.04	.01	.01	.01
학생지도의 어려움	.12*	-.06	.10	.09	.12*	.06	.09	.25**
학부모 간섭	.17**	.04	.16**	.09	.06	.07	.12*	.05

주. * $p < 0.5$, ** $p < .01$

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요인이다. 이 요인이 독립되어 나타난 것은 그만큼 국내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무시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조그만 일에도 학교로 항의전화를 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7개 요인 가운데 이 요인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의 평균에서도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시할 때”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4.42)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과다한 수업관련 업무 요인의 내용도 최근의 교육 현장 실태를 반영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계속되는 교육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 대한 수행평가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이동 학습이 실시됨에 따라 일선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짐을 말해주는 것이다.

탈진감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Maslach와 Jackson(1981)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3 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일부 문항의 경우 Maslach와 Jackson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본래의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더 높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본래의 요인에도 높게 관련되었기 때문에 요인구조를 해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 결과는 김민호(1991)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재호, 이수정 및 이훈구(1998)가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타난 탈진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도 Maslach와 Jackson의 3 요인이 지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과 탈진감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정서적 소진 및 비인간화와는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나 낮은 성취와는 관련이 없었다. 특히 낮은 성취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높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관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부적 상관계수가 계산된 이유는 낮은 성취 요인에 속하는 문항 모두가 표 2에서 보듯

이 긍정적인 문항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추수 연구가 필요하다.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비합리적 행정 요인이 정신건강과 가장 크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행정은 정서적 소진, 비인간화, 소화장애, 심혈관계장애 및 불안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는 학교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교사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원인 요인은 다양한 정신건강변인 가운데 정서적 소진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진감의 세 요인 가운데 정서적 소진요인은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정서적 소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결과는 교사들이 하루 종일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성취감이나 비인간화 요인보다도 정신적인 피곤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원인이 소화장애, 심혈관계, 통증 및 불면 등의 신체화보다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가 교사들에게 짜증스럽고, 괴롭고, 걱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하나 신체적인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원인으로서 학부모 간섭이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이 요인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제 국내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직이 누구나다 부러워하는 직업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될 때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도 교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 증원, 반 학생 정원의 감축 등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없이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수행평

가나 수준별 이동학습 등의 제도가 일선 교사들에게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가져옴을 깨닫고 정부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투자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직무스트레스 원인 문항 가운데 요인분석 결과 “학부모 간섭”에 속하는 문항으로 분류된 “필요이상의 간섭을 받을 때”의 경우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에 대한 간섭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등의 상급자 또는 교육부로부터의 간섭 등이 있을 수 있다. 추수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학부모로부터 필요이상의 간섭을 받을 때”로 수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집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원인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추수 연구에서는 다른 표집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직무스트레스원인 척도를 실시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 대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제한되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래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남녀 고등학교,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지역까지 포함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작성하여, 전체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권기태(1990).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호(1991). 교사스트레스와 탈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휘(199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 신체적 증상 또는 탈진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희찬(1997). 고등학교 교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변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신자(1994).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영애(1985).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교사의 스트레스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호, 이수정, 이훈구(1998). 근로자들의 정서관련 특성이 직무로 인한 탈진감에 미치는 영향: 탈진감에 대한 저항기제로서의 정서기능.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1, 23-53.
 임종철(1991). 교원의 스트레스와 소진경험. 교육월보, 113, 40-44.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효(1993). 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과 개인차변인. 학생지도연구, 10, 1-35.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Cunningham, W. B. (1983). Teacher burnout. *Urban Review*, 15, 37-51.
 Clark, E. H. (1980). *An analysi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s perceived by public school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D'Arienzo, R. V. (1991). *Stress in teaching: A comparison of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factor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classroom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Gold, Y. (1984). The factorial validity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in a sample of California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classroom teache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4, 1009-1016.
 Green, D. E., & Walkey, F. H. (1988). A confirmation of the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8, 579-585.

- Iwanicki, E. F., & Schwab, R. L. (1981). A cross validation study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167-1174.
- Kyriacou, & Sutcliffe, J. (1978). Teacher stress: prevalence, source, and symptom.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159.
- Maslach, C., & Jackson, S. (1981).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ilstein, M. M., Golaszewski, J. J., & Duguette, R. D. (1984). Organizationally based stress: what bothers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7, 294.
- Newell, S. (1995). *The healthy organization*. London: Routledge.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The Effects of Job Stressors of High School Teachers on Mental Health

Tak, Jinkook Shin, Pilsoon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job stress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teachers. Thirty high school teachers were asked to describe job stressors using an open-ended questionnaire format. Based on 220 responses obtained, 45 items to measure job stressors were developed.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92 high school teachers.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the job stressor scale showed that seven factors were meaningful. These factors were: irrational administration, disrespectful attitude and behavior, shamefulness of the teaching profession, curriculum-related problems, overloaded work, difficulties of student guidance, and interference of students' parents. Among the seven factors, the interference of students' parents ranked the highest. Results of factor analyses of the burnout scale identified three factors consistent with the study of Maslach and Jackson (1981).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generally, irrational administration had the highest effect on mental health.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